

PVC업계 증설 “활발”

2000년까지 LG화학 100만톤, 한화 75만톤으로 확대

94년 합성수지업계가 활황을 맞이한 가운데 PVC업계의 증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해 PV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수 및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94년11월 여천 PVC공장에 5만톤의 증설을 단행, 국내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LG화학은 해외에도 플랜트를 건설해 200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 96년까지 60만톤, 98년까지 80만톤 등 단계적으로 10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PVC 증설전망 (단위 : M/T)			
구 분	1994	1996	2000
LG화학	450,000	600,000	1,000,000
한화종합화학	380,000	525,000	750,000
합 계	830,000	1,125,000	1,750,000

또 한화종합화학도 현재 38만톤에서 96년까지 14만 5000톤을 증설, 2000년에는 75만톤의 PVC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000년까지 국내 PVC 생산은 최소 175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을 비롯해 현대석유화학·유공 등

도 PVC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한국비료 인수로 기초원료인 염소의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기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 PVC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승용차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97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삼성종합화학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은 최근 승용차사업 진출이 확정됐고, 건설 및 건축자재 등 자가소비분이 상당량 있으며 기존 계열사와 하청기업을 통한 시장공략에 나설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삼성종합화학이 PVC사업에 진출할 경우 염소는 물론 VCM까지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석유화학과 유공도 PVC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의 대규모 증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만일 삼성·현대·유공 등이 신규참여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함께과잉물량 해소를 위해 건축·자동차 등 PVC 완제품시장에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PVC경기가 앞으로 2 3년간 활황을 지속할 경우 참여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5/1/16>

